

전남 동부권

‘효의 고장’ 곡성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

10년동안 어르신 1344명 開眼

‘효(孝)의 고장’ 곡성군이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를 통해 1300여명의 노인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려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곡성군은 “심청축제 부대행사인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3억 7700여만원을 모금, 도내 불우노인 1344명에게 개안(開眼)시술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곡성군과 전남도 사회복지 공동모

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는 어린 심청이 가뭇한 효심으로 남경장사에게 공양미 삼백색에 팔려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조금씩 성금을 모아 불우노인들의 안과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곡성 효문화 축제의 대표행사다.

올해 행사는 군과 협약을 맺은 남원 안과, 밝은안과21, 남원 중앙안과, 광주 희망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과 검진과 정형외과 진료가 무료로 실시



시된다.

곡성미 삼백색 모으기는 효문화 축제 행사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된 계좌에 일정 성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받을 수 있다.

성금기탁 계좌 농협 351-0334-0955-63 곡성 청년회의소(공양미 삼백색모으기)

한편 곡성군은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삼진동 기차마을에서 ‘제11회 곡성 심청 효문화 대축제’를 개최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 대표작가 전시관 만들자

市 무관심에 문화 콘텐츠 활용 못해 타 지자체와 대조

여수가 낳은 대표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출신 작가로는 작고 23주기를 맞은 손상기(1949~1988) 화백을 비롯해 만화가 허영만, 사진작가 배병우, 방송작가 김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이종섭 화백과 쌍두마차를 이루며 한국 수채화의 거장으로 불린 배동신 작가와 만화가 고흥석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같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인근 통영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통영시의 경우 작곡가 윤이상을 비롯해 박경리 소설가, 김춘수, 유치환 시인 등의 전시기념관을 건립해 연간 수백만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인근 보성군도 대하소설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의 기념관을, 고흥군은 화가 천경자의 전시관을 건립해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

보성-조정래 기념관  
고흥-천경자 전시관  
통영-박경리 기념관  
수백만 관람객 몰려

들고 있다.

현재 여수의 경우 지난 2007년 손상기 기념사업회가 꾸려져 각종 심포지엄과 유작전을 여수에서 펼치는 등 전시관 건립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나 여수시의 무관심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상기 화백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례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경매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기 기념사업회 김홍용 회장은 “손 화백은 39세에 요절했지만 사후에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고

향 여수에 전시관을 만드는 일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국보 가수 엘튼 존이 작품을 구입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배병우 사진작가도 최근 전시관 건립을 위해 여수시와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견을 보여 전시관 건립을 제우도로 변경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만화 ‘식객’과 ‘타짜’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명성을 얻은 허영만 작가도 지역에서는 만화 박물관이나 식객 테마파크를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여수시가 손을 놓아 타 지자체와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55·여수시 신월동) 씨는 “여수는 세계적인 작가들을 보유한 문화예술의 고장이지만 어느 시장도 무관심했다”며 “박람회와 연계해 여수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흥 '만남의 광장' 개장식에서 참가자들이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고흥군은 관문인 동강면 한천리 일대 부지 1만4218㎡에 총 사업비 35억3600만원을 투입해 관광안내소와 농·수·특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최근 열린 '고흥 만남의 광장' 개장식에서 참가자들이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고흥군은 관문인 동강면 한천리 일대 부지 1만4218㎡에 총 사업비 35억3600만원을 투입해 관광안내소와 농·수·특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동부취재본부=주중경기자 gjju@

여수해양항만청 소록도 등에 등표 설치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앞바다 암초, 고흥군 금산면 연흥도 주변 암초 등 2

곳에 등표를 설치했다. 이들 암초는 썰물 때에는 드러나지만 밀물 때에는 보이지 않아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설치한 등표는 지름 5m·높이 11m 크기의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상부에 조명이 설치돼 야간에는 점멸한다.

/동부취재본부=주중경기자 gjju@

가막만 굴 성장 막는 산소부족 물덩어리 소멸

여수 가막만에 내려졌던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 주의보가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가막만 어장환경 조사에서 지난 7월 17일 처음 확인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가막만에서는 지난달 6일 조사때 바다 저층에 강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형성돼 있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 농도가 ㎖ 당 3㎍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여름에 해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내만의 부영양화된 바다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변해역 양식장에 있는 굴, 우렁챙이 등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며, 심하면 양식생물이 폐사할 수도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올해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예년보다 보름정도 빨리 소멸했다”며 “올해 남부지방 장마가 한달 정도 지속됐고 장마 이후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아 수온과 염분 약진이 약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순천만 정원박물관 조직위 국내외 정원 유치 나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정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람회장 정원은 전통, 실용, 도시, 미래라는 4개의 테마와 실내와 1만2000㎡의 면적으로 구성된 공간에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정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원박물관장에 만들어

지는 외국 정원은 ▲세계 전통정원 10개소 ▲실의 테마정원 8개소 ▲실내정원 30개소 등 총 48개소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지난해 제62차 AIPH 순천총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여 세계 전통정원 10개소 등 총 20개소 참가를 확정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전 북

2년째 방치된 군산해경 옛 청사 이달 말까지 경쟁입찰 방식 매각

예정액 19억여원 될 듯

2년째 방치된 군산해양경찰서 옛 청사가 매각된다.

전북도는 군산해경 옛 청사를 복수의 감정 평가기관에 맡겨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한 뒤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청사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예정금액은 19억여 원이 될 전망이다.

군산해경과 전북도는 지난 2009년 해경 옛 청사와 전북도 소유의 군산의료원 부지를 20억원대의 가격에 맞바꿨으나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 2년째 방치되고 있다.

옛 청사는 부지 4927㎡, 건물면적 3085㎡로 본관 건물과 2채의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1986년에 건립된 건물이 매우 낡아 홍물로 변한 지 오래고 건물에는 보안장치가 있지만 운동장과 본관 앞 등지의 출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자칫 범죄현장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쉽게 팔리지는 않겠지만 매각될 때까지 건물과 부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국문학자 가람 이병기 선생 재조명

23~24일 원광대서 학술대회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1891~1968) 선생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23~24일 원광대 송산기념관과 여산면의 가람 생가에서 열린다.

‘가람 이병기의 문학과 사상’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가죽은 물론 국내 국문학계의 거두가 된 가람의 제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최원식 인하대 교수의 ‘가람 이병기의 문학적 지성사적 위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여 명의 문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특강과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리는 식전 행사에서는 가람 시조를 우리 가락으로 편곡한 공연이 일반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원광대 송산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가람 선생의 시조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가람 시조 문인화 특별전’이 열린다.

참석자들은 둘째 날에는 여산면의 가람 생가현장으로 가 생가 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익산문화재단 이태호 정책실장은 “가람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고자 이번 학술대회의 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구성했다”면서 “동아시아 변방의 한계를 벗어나 근대 극복을 꿈꿨던 가람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뉴스 브리핑

‘창작극회’ 소리문화의 전당서 아리랑 공연

전북 최초의 연극단체인 ‘창작극회’는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획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24~25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아리랑’을 선보인다.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 기념비적 영화인 나운규의 ‘아리랑’을 현대 악곡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에 앞서 창작극회는 창단 50

주년 기념공연으로 지난 4월부터 연극 ‘그 여자의 소설’과 ‘얼굴 없는 천사’를 무대에 올렸다.

창작극회는 1961년 2월에 전북대 극예술연구회가 중심이 돼 만들었으며 꾸준한 활동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의 연극계를 이끌어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중기청, 원광대서 27일 그랜드 취업박람회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27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2011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동양기전(주) 익산공장과 광전전자 등 3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에

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진행한다.

또 무료 사진촬영관과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는 인터넷활동관, 전문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지메이킹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주와 군산에서도 박람회가 열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순창군 ‘장류축제 이야기’ 책으로 펴내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류축제를 알리기 위해 축제에 관한 이야기 책자를 펴냈다. 책자는 7개 분야 39개 장류 축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진행 방법, 프로그램 이야기, 지역 장류산업, 순창고추장 역사, 장류 문화·관광인프라 등을 담았다.

한편 제6회 순창 장류축제는 11월 3~4일 이틀간 읍내 민속마을에서 열린다.

축제는 전국다문화가정 장맛경연, 순창전통고추장 담그기, 2011인분 비빔밥 만들기, 발효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인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광한루원’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남원시는 최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외에도 시민의 자율적 금연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추가되는 광한루원, 금암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500개소의 자율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평생학습축제 전북 홍보관 인기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전북지역 홍보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제시와 남원시, 정읍시 등 7개 시·군은 공동으로 홍보체험관을 운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군산 내항 재개발사업 탄력 불나

시행자 범위 확대 등 항만법 개정, 부동산투자사 참여 길 터

일제 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의 수탈 통로로 이용됐던 군산 내항(內港)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해 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로 제한되고 사업지구내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자에 추가되고 최장 40년까지 국유지 임대가 가능해 민간 투자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내항 재개발은 군산시 장미동 일대

47만4300㎡에 사업비 514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인프라 구축 외에 수변공원과 광장·숙박시설·상업지구·주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군산 시립박물관, 진포 해양테마관 등과 인근에 있는 내항은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하면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 여성일자리교육센터 22일 준공

일자리 창출·육아 보육 지원

전북지역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 일자리교육센터가 22일 준공된다.

총 165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총넓이 8300㎡)다.

여성 일자리교육센터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 육아 보육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당초 이 센터 건립을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

으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전북도 유기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국 광역단위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일자리센터가 건립된다”면서 “기업과 일자리교육 센터가 각종 정보를 공유해 여성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